

# 1980년대 아동 생활글 연구

—이오덕의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강도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 2 아동 글쓰기 양식의 변화
- 3 1980년대 아동 생활글 담론
- 4 생활글 교육 및 문화에서의 개방적 관계성
- 5 결론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1980년대 아동 생활글 연구」(서울대학교, 2020)을 요약한 것이다.

## 1 서론

문학의 주체로서 아동은 흔히 동시나 동화와 같은 아동문학을 수용하는 독자로만 여겨졌다. 이에 비해 창작 주체로서 아동은 낯설고 특이한 존재이다. 아동의 글쓰기는 시/산문, 구어/문어, 상상/현실의 구분이 모호하고 표준어나 맞춤법을 꼭 따르지 않는다. 하나의 완결되고 총체적인 서사를 이루기보다는 선택적 기억과 감각을 즉흥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 반드시 시간적 순서를 따르거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더 어린 아이의 글은 심지어 문자라는 자명한 형식을 탈피하기도 한다.<sup>1</sup>

아동의 글은 교육과 문학, 하향식 제도와 자생적 활동을 넘나들며 한국문학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본고는 근현대 한국문학의 장을 구성해왔던 아동의 글을 계보화하고, 그중 아동이라는 독특한 글쓰기 주체의 창조력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던 1980년대의 ‘아동 생활글’ 담론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담론이 요구했던 저자로서의 아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실제 생활글을 썼던 아동들이 담론을 초과하며 가졌던 정치적 힘을 살펴볼 것이다.

주지하듯 1970~80년대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존에 글쓰기 주체로 주목받지 않았던 이들이 ‘민중’이라는 이름 아래에 적극적으로 글쓰기를 수행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민족문학·민중문학·노동문학·농민문학 등 다양한 기표로 호명된 1980년대 문학을 설명하는 기준으로서 남성·노동자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미 상당히 축적된 것에 비해, 민중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본고는 선택적 전통에서 배제된 다양한 주체들의 글쓰기를

---

1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에서 세 살 정도 되는 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이는 말할 줄 몰랐고 이름도 없었다. 후르비넥이라는 이상한 이름은 우리가, 아마도 여자들 중 한 명이 그랬을 터인데, 어린아이가 가끔씩 내뱉는 분명치 않은 소리를 가운데 하나를 후르비넥으로 해석하여 그에게 붙여준 것이었다. (...) 연이은 날들 동안 우리는 그의 말을 너무 알아듣고 싶은 나머지 다들 조용히 한 채로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우리 중에는 유럽의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후르비넥의 말만큼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휴전』, 돌베개, 2010, 34-35쪽)

다시 읽어 당대 문학·문화를 복원하려는 선행 연구들에 대체로 공감하며 그럼에도 문제의식의 확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민중문학 혹은 노동문학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아동(문학)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의 주된 과제가 대중/민중, 80년대/90년대, 리얼리즘/모더니즘 등의 이분법을 타파하는 것이라면<sup>2</sup>, 아동/성인의 이분법은 아직 충분히 질문되지 않은 듯하다.

아동/성인의 구분은 근대적 가족제도나 교육제도가 나타남에 따라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각별한 보호와 지도를 받게 되면서 더 강조되었다.<sup>3</sup> 이러한 ‘아동의 발견’은 근대 아동문학·문화를 형성하고 아동을 독자적인 글쓰기 주체로 보았던 배경인 동시에, 그 글을 지도하고 심사할 성인의 역할을 요청했다. 1970~80년대 아동 생활글 교육 및 출판운동은 이러한 역할 분담 위에 형성된 아동/성인의 암묵적 위계를 비판하며 등장했지만, 그 자신이 아동을 억압받는 수동의 존재로 보면서 ‘의식화’를 도와주는 성인 지도자의 개입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 자신에게 요구되는 생활글 규범을 전유해 자아를 재인식 및 재창조하고, 교사나 학급 친구와의 지적 평등을 확인하는 아동 생활글의 텍스트는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창조성과 상상의 지대에서 파생되는 ‘리얼한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아동 생활글은 해방과 자유를 스스로 추구하게끔 하는 교육이자 문학이었다.

기실 아동/성인 구분에 대한 물음은 그 연결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기는 육체적·정신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현재의 상태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 성장의 일차적 종착점인 성인(청년)이 되지 못한 아동의 고통이나 죽음은 더 절망적이다. 아동은 성인의 미달태나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그 신체가 가진 능력이나 한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접촉에 열려 있고 그 변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잠재(potentia)의 지평에 있다. 아동에게 모든 마주침은 최초의 마주침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조건과의 작용에

2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시대와 문학론의 ‘토픽’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89-416쪽.

3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04, 161-188쪽.

서도 그 행위성이 가장 치열하고도 복잡하게 발현된다. 아동문학사가 끊임없이 갱신하려 했던 개념인 ‘동심’은 순수함이나 선함을 떠나서 이러한 인간 본연의 정신적 구조가 그대로 나타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연결성을 아동 생활글에서 찾고자 했다. 초등교육현장에서의 생활글은 개인의 일생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글쓰기 형태이지만 50년대 후반부터 그 단초를 보였다는 점에서 80년대 노동자·농민·도시빈민 수기에 대한 일종의 전사(前史)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식인 문학에 저항한 이들 수기의 전복성에 치중해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이들의 일자무식을 일종의 수식어처럼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게는 유일했을 그 최초의 교육을 면밀히 살펴야만 70~80년대에 그토록 많은 ‘무지렁이’들이 펜을 들 수 있었던 이유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특히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나 양질의 단행본 도서를 접하지 못했던 당시의 아동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글을 쓰고 또 다른 아동의 글을 읽는 공통 경험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문학·문화적 경험으로 봐야 한다.<sup>5</sup> 아동 생활글은 단순히 교사의 일방적 의도에 따라 구성된 장르가 아니라 예술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에 기대어 참여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응축하고 있었다.<sup>6</sup> 생활글 문화는 아동이

4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성인 노동자 수기의 생산 과정에도 관여했던 이오덕에 주목하며 노동자 문학과 그의 교육론 간의 상관성을 암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천정환은 야학 노동자의 일기쓰기와 관련해 이들을 가르친 이오덕의 일기 교육론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으며(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제106호, 역사비평사, 2014, 203쪽), 김대성은 10대 노동자들의 일기를 수록한 생활글 모음집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1980)의 편집자 한윤수가 서문에서 이오덕의 아동시 모음집 『일하는 아이들』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1980년대 위주로 논의된 노동자 글쓰기 운동이 그 정확한 연대기를 논의하려면 더 다양한 영향관계를 추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대성, 「역사적 합창으로서의 노동자 글쓰기」, 『문화과학』 제90호, 문화과학사, 2017, 219쪽)

5 1990년대 이후 아동 독서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독서교육 및 논술 ‘붐’이 일어나면서 아동의 글쓰기는 1980년대 아동 생활글과는 다른 생산적 배경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창조성이나 공통적 의사소통보다는 논리력 혹은 개인적 차별화가 중시되는 등 그 감성 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확한 논의는 추후로 미뤄두기로 한다.

6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8, 71쪽.

타인과 소통하는 초기의 언어를 직접 형성하는 자신을 자각하고 또 다른 경험과 해석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러한 관계들은 교사와 학생에서 출발해 아동과 아동, 혹은 아동과 성인으로 확장된다. 또 예술적 주체로서 아동의 미학적 개방성은 글 쓰기를 넘어서는 장르의 융합을 보이면서 성인 작가들을 포함해 다른 구성원들과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공통적 창조의 경험을 갖고서 ‘아동’ 저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글을 썼으며, 후속 세대의 아동 생활글을 추동하기도 했다.

## 2 아동 글쓰기 양식의 변화

아동은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질문을 조금 고쳐서 아동의 글은 언제부터 가시화되었는가. 아동의 글쓰기는 20세기 초 그 형태와 제도적 기반이 급격하게 바뀐 문학과 교육의 두 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예글과 생활글이라는 두 가지 양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초기 근대 문학 장에서 문예는 ‘현상문예’, ‘신춘문예’ 등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글 전반으로 이해되었으며 그 형식이 꼭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수필이나 편지, 일기와 같은 ‘비문학’도 그것의 일차적 집필 목적이 발표나 투고와 같은 외부로의 공개에 있으면 문예로 이해되었다. 오늘날 신춘문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12월 13일 『매일신보』의 ‘신시현상모집(新詩懸賞募集)’은 1914년 12월 10일에 ‘신년문예모집(新年文藝募集)’으로 명칭이 바뀐다. 아동 문예글도 아동문학 장이 처음 생겨날 때 아동 잡지들이 모집한 현상문예가 그 시초였다. 최초의 아동잡지인 『소년』(1908.11.~1911.5.)은 「소년문단」란을 통해 조선의 소년들에게 감회, 견문, 고향의 풍토, 선배의 경력, 시사, 서한 등을 쓰게 했지만 모집이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sup>7</sup> 아동 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쓸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된 1920년대부터는 기존에 성인에게만 적용되었던 ‘문예’ 혹은 ‘문학’의 영역에도 아동이 포함된다. 『어린이』나 『신소년』과 같은 아동 잡지를 통해 최순애, 이

7 「소년문단」, 『소년』 제1호, 신문관, 1908, 75쪽;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 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제45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44쪽.

원수, 신고송 등 소년문예가들이 등장하고 1920년대 말이 되면 아동 및 성인 동요 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단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문예는 점차 협의의 창작 문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읽기/쓰기를 공동의 문화 경험으로 확장하는 매체적 효과와 더불어, 아동 문예글은 다른 아동들에게 중요한 읽을거리이자 글쓰기를 위한 독본으로 작용하면서 아동문학 장을 형성했다.<sup>8</sup> 한편 아동 문예글이 일제 말기에는 참전에 호소하는 ‘소국민’의 글쓰기로<sup>9</sup>, 해방 후에는 순수의 외피를 입고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지지하는 제도적 글쓰기로 생산된 점을 들 때<sup>10</sup>, ‘문예’는 성인 중심의 권력의 효과이자 글쓰기 주체로서 아동의 생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생활글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훨씬 다양한 경로와 목적을 갖고 쓰인 아동의 글쓰기 양식이었다. 앞서 본 교육부나 민간 출판사에서 내놓은 ‘독본’ 출판물, 매체에 연재되는 작법 관련 글 등을 통해 글 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할 지면을 얻으면서 아동에게 글쓰기는 더 이상 낯선 활동이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 목적으로 쓰인 글로서 생활글의 대표적인 형태는 편지와 일기였다. 한편 1922년과 1930년에 교육 과정을 개정한 식민 당국은 형식적인 습자(서법) 중심에서 표현적인 작문(철법) 중심으로 글쓰기 교육의 초점을 옮기고, 그중에서도 실용적인 생활글을 강조한다.<sup>11</sup> 일제 말기부터 행해진 일기교육은 아동에게 일기를 개인의 생활

- 
- 8 『어린이』 제2호에 실린 「이러케 하면 글을 잘 짓게 됩니다」에서 편집자는 “우리 어린이 잡지에 뽑힌 글 발표되는 글도 주의해 읽도록 하는 것이 크게 참고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어린이』 제2호, 1924, 35쪽.)
  - 9 1930년대 중반을 넘으면 『어린이』, 『신소년』, 『새벗』, 『별나라』 등 아동잡지들은 폐간됐으나 아동 문예글은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와 같은 총독부 기관지의 학예면 문예투고를 통해 생산됐다. 식민 당국은 일본군 위문편지나 중일전쟁 기념 작문 등의 주제를 내걸고 수시로 아동의 글을 모집했다.
  - 10 반공 일기나 국군 위문편지 등 아동의 반공 글쓰기는 1951년 전시 특별교육조치에서부터 시작된 ‘반공·멸공 교육’이 1989년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 1995년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되었다.
  - 11 허재영, 「국어과에서의 쓰기교육 변천 연구」, 『어문론총』 제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131-132쪽;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366-376쪽.

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면적 글쓰기로 각인시켰지만 정작 아동은 교사라는 검사자의 존재를 인지하며 글을 써야 했다. 이처럼 학교라는 생산 현장을 간과할 수 없는 아동의 생활글은 애초부터 온전히 사적일 수 없고 공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해방 후 교육 현장에서는 식민지기 일본의 생활글 교육이 보고 배운 것의 관념적인 전달이었을 뿐 아동의 ‘생활’ 기록이나 의사 표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젊은 교사들은 백일장 등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문예글 또한 개성이 없는 수사학이나 미학으로 빠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생활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 교육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안네의 일기』, 『구름은 흘러도』, 『저 하늘에도 슬픔이』 등 아동생활글 출판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생겨난다.

생활글쓰기를 강조했던 교사 가운데 이오덕(李五德, 1925~2003)은 운동의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교사이자 아동문학가였던 그는 1960년대에 상주와 안동의 시골 분교에서 글쓰기 지도를 하며 그 자신이 모으거나 다른 교사들이 보내준 아동 생활글의 출판을 기획하고, 『글짓기 교육』(1965), 『아동시론』(1973) 등의 책을 통해 생활글 이론을 정립한다. 그의 책을 읽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1983년에는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와 YMCA 초등교육자회가 창립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80년대 민중 교육운동에 참여하면서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및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출범에 동참했는데, 당시 교사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학급문집 출판을 ‘전교조스러운’ 교육활동으로 낙인찍으면서 아동 생활글이 쓰이고 읽히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만들었다.

### 3 1980년대 아동 생활글 담론

196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기지촌 여성, 사형수, 여승, 조직폭력배, 주부 등 일반인들의 수기물 ‘봄’ 현상은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노동자 수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민중의 글쓰기’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때 논픽션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며 거짓된 사실의 거부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추게 되면서 ‘허구와 환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제 기능을 다 하

지 못하는 기성 언론과 문학을 대체했다.

생활글쓰기를 주도했던 다른 교사들에 비해 이오덕이 두드러지는 점은 일찍이 아동의 글쓰기가 ‘문학’으로서 갖는 가치에 특히 주목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문학은 일차적으로는 문인이 쓰는 좁은 의미의 순문학을 의미했지만, 그 궁극적인 방향은 생활글을 한 장르로서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이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주부, 노동자, 농민 등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자기 삶을 표현하는 문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토대에 아동 생활글이 놓인다고 보았다. 물론 앞서도 아동의 글을 문학으로 보고 그 ‘문학성’이 성인의 미달태인지 아니면 성인보다 더 뛰어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다. 그러나 이오덕의 생활글론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이든 아동이든, 누군가의 글이 더 훌륭하다는 그러한 위계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글쓰기가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개개의(singular) 글쓰기가 갖는 가능성에 대한 평등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동의 작품과 성인의 작품 모두를 지칭하는 ‘동시’ 대신 ‘어린이 시(아동시)’라는 고유의 이름을 통해 그 성인 중심성을 상대화하려는 시도로도 이어진다.

아동의 글이든 노동자나 농민의 수기든 생활글에서 발견된 민중문학의 운동성은 다름 아닌 사실성(reality)이었다. 진실과 허상(가식, 허위, 거짓)의 이분법은 이오덕 비평의 핵심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이오덕은 윤석중, 박목월, 강소천, 김영일과 같은 순수아동문학 작가들의 동요에서 나타나는 어린아이 화자의 말투나 행동이 실제 아동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어린 아동의 생활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귀여움과 재미를 과도하게 부각한 대상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에게 진실은 작품 밖의 저자와 작품 안의 화자가 일치할 때 구현되는 것인데, 성인 작가의 경우 아동 화자를 재현하는 것이 언제나 타자화의 위험에 놓이는 한편 아동의 경우에는 그대로 쓰기만 해도 작가인 실제 아동과 작중 화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동이 성인의 글을 모방하여 자기 생활을 꾸며 쓰려고 하면 진실성은 파괴된다. 이렇듯 “가식(假飾)과 허위를 물리치고 진실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글짓기 교육의 사명”을 강조한 첫 책 『글짓기 교육』에서부터 그에게 창조의 대상은 ‘진실한 생활’이었다. 이 ‘진실한 생활’은 대상이나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행위(living)이자 정확하게 재현된 대상(life)



자체였다.

그런데 진실성이 아동이라는 주체에 선형적으로 내재한다는 인식에는 그것이 사후적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이 가려져 있다. 물론 학교의 글쓰기 현장에서 학생의 행위를 주재하는 내면화의 기제로서 정직성과 진실성은 약속이나 가치의 형태로 체화된 것이지 규율이나 교사의 권위가 일방적으로 행사된 것은 아니다. 이오덕은 교사가 일기 쓰기를 강요하거나, 특정한 형식(길이, 주제, 글씨)을 정해주는 것에 반대했으며 아동이 스스로 원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의 일기에서는 진실해라는 선생님의 정언명령과 ‘훌륭한 아동’이 되기 위한 거짓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어제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글짓기는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난 거짓으로 꾸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 3학년 때는 곧잘 거짓으로 꾸미곤 했었다. (...) 선생님께선 “상 받으려고 쓰지 말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라”고 하셨으나 1등을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나. 아이! 참 모르겠다. 풀찌나 해버려라.

— 경북 의성국민학교 4학년 안연희, 「오늘 아침」<sup>12</sup>

이 과정에서 진실은 일기장에 적은 것을 진실로 만들어주는 장치(dispositif)가 된다. 현실의 ‘나’가 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나’가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전유해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일기의 저자들은 훌륭한 형, 훌륭한 자식, 훌륭한 학생 등 규범적인 ‘아동’으로 자신을 형상화한다. 한편, 학생들은 규범이 파괴된 토대 위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며 쾌감을 느끼는 이중성을 보인다. 실제로 어려워 할 줄 알고 시킨 ‘거짓말 글쓰기’에서도 아이들은 “뜻밖에도” 호기심과 흥미를 보이며 ‘참말 글쓰기’보다도 더 재밌어하는데<sup>13</sup>,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 욕망은 상실의 경험이 클수록 가중된다.

12 이오덕 편, 『우리반 순덕이』, 창작과비평사, 1984, 87쪽.

13 이오덕, 『이오덕 일기 1』, 양철북, 2013, 103쪽.

아동이 글쓰기 과정에서 부딪친 재현 불가능성 혹은 창조적 변용을 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투명하고 순진한 서술자의 진실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생활글에서 아동은 단순히 매개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비극성을 순화하거나,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면서 세계를 재구성한다. 생활글에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라 믿어진 ‘현실’은 글을 쓰는 아동에게는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재구성은 왜곡이나 거짓이 아니라 주체의 통제 능력 안에 현실을 배치하려는 시도로 봐야한다. 즉 아동 생활글을 이미 쓰인 ‘생활’에 의거해 그 진실성이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쓰는 중인 ‘아동’으로 분석의 초점을 전환하여 아동이 왜 특정 내용을 썼는지, 혹은 쓰지 않았는지를 당시의 맥락에 맞춰 살피는 것이 더 큰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이 아동 생활글의 재현 방식이라면, 이오덕에게 ‘일하는 아이들’은 재현의 내용이자 창작자의 주체성이었다. 실제로 농촌 아이들의 생활글에는 타작이나 벌목과 같은 농사일부터 설거지, 밥하기, 아이 돌보기 등의 가사노동, 교실 청소 같은 학교에서의 노동 등이 소재 대부분을 이뤘다. 농촌 아동의 노동은 교환 가치를 실현하는 공적 활동으로 취급되는 성인 남성의 노동에 비해 그림자 노동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를 가시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현하는/되는 아동에게 윤리성과 재현적 미학성(문학성)을 보유했다.<sup>14</sup> 그런데 문제는 아동 생활글에서 드러나는 생활적 노동의 세계를 선형적이고 고정적인 노동자 주체의 것으로 볼 때 “일하며 살아가는 즐거움”<sup>15</sup>을 벗어나려고 했던 아동의 욕망이나 내적 갈등은 과도기적인 ‘유년 시절의 낭만’으로 해석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또 아동의 일(work)을 한 가족의 계급적 상황으로 환원하면서 아동 간의 차이는 배제되고, 아동은 정상 가족의 범주 하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농부와 광부의 삶을 잇는 예

---

14 가령 『일하는 아이들』의 머리말에서 이오덕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농촌 아이들이 정직하게 자기를 나타낸 결과는 그것이 일하는 생활의 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집에는 편안하게 놀면서 살아가기 위해 점수 따기 공부만을 하거나 상 타기 동시 짓기를 하는 아이들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실제 느낌과 삶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아이들은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한 자기의 생활로, 오히려 자랑스럽게까지 여기고 있다.” 이오덕 편, 『일하는 아이들』, 청년사, 1978, 4쪽.

15 위의 책, 12쪽.

비 노동자가 된다.<sup>16</sup> 결국 아동/성인 간 보조/실무의 위계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실제 생활글 모음집 속의 아동들은 계급·성별·장소에 따라 노동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의 주체화 또한 다양하고 유기적으로 나타났다. 글쓰기는 노동자나 학생과 같은 주어진 정체성 사이에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이자 공간이었다.<sup>17</sup> 이때 주목되는 것은 당대 아동에게 글쓰기가 노동 속에서(through)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이후(beyond)에 이뤄졌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이다. 예컨대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를 쓴 10살 소년 윤복에게 일기는 ‘가난한 껌팔이’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막간의 수업 시간을 틈타 노래와 춤, 장난과 거짓말로 떠들썩하게 웃음이 터지는 학생으로서 행복한 기억들을 기록하려는 욕망의 장이었다. 이처럼 노동으로 인해 거부된 시간이나 정체성을 다시 취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글쓰기는 오히려 괴로운 노동에서 재미있는 놀이로 돌아가는 경로였으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동력이 되었다.<sup>18</sup> 즉 ‘일하는 아동’은 글쓰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

---

16 가령 생활글 모음집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나 『우리도 크면 광부가 되겠지』의 표제작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을 담고 있는 데 반해, 편집자들의 어조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부모 세대와 아동 간의 투쟁을 위한 연대에 힘이 실려 있다. 자본주의적 가내 분업 체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가부장적 노예 혹은 (재)생산 도구로 전락시킨 것을 두고 분업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정상 가족을 가질 권리를 놓고 투쟁했던 국내/외의 노동 담론들은 남성 노동자의 ‘자유’를 그에 의존하는 존재들의 비자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았다.(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238-245쪽)

17 정체성은 공동체를 결집하고 그 안에서 권력을 분배하는 모종의 체제(치안, police)에 의해 한 구성원에게 부여된 이름이다. 반면 주체화는 기존의 체제에서는 식별할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공동체에 기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화는 앞서 있었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건에 질문을 던지는 ‘불화’의 시도이다. 예컨대 아동 저자나 아동 생활글은 분명 기존의 문학 체제에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었음에도 이를 앞선 아동 문예글이나 성인 노동자 수기와 동일시하여 설명하는 기존의 담론들은 이들의 차이나 이질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었다.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역, 『불화』, 길, 2015, 71-81쪽.

18 19세기 초중반 노동자들의 문서고에서 계급적 저항 의식을 찾고자 했던 랑시에르는 당시의 노동자들에게는 지배가 각인된 자신들의 신체, 행동, 언어 등으로부터 지성적이고 물리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했음을 깨닫는다. 시키지 않은 토론, 글쓰기, 사색 등을 통해 이들 노동자는 각자의 영혼에 따라 주어진 ‘시간’과 정체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플라톤의

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때의 글쓰기는 노동의 바깥에서 노동을 사유하는 주체적 수행이었다.

#### 4 생활글 교육 및 문화에서의 개방적 관계성

2장에서 편의상 아동 문예글/생활글을 각각 공적/사적 성격의 글쓰기로 분류했으나 학교에서의 생활글은 사실 그 경계가 희미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를 빠지고 홀로 일해야 하는 아동이 노동자의 신체를 벗어나 일기를 쓰며 확인받는 자신의 타자성은 곧 선생과 다른 아동이 있는 공동체와의 접점을 의미했다. 스스로가 아니면 교사나 부모가 나서서 꾸준한 일기 쓰기를 강조한 것은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되기를 바라서였다.

이질적인 개인들의 마주침은 놀이의 본질이기도 하다. 놀이하는 아이는 보호자로 대표되는 타인으로부터의 의존을 벗어나 고독하고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 다시 그 타인을 자신의 세계에 초청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나 자신과 다른 관점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우연성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sup>19</sup> 교사-학생에서 시작해 동일하거나 다른 장소의 아동들, 성인들, 다른 시대의 개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생활글쓰기의 구체적 관계들은 기존의 ‘아동’이나 ‘학생’에 부여된 고정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과 질서를 형성한다. 생활글의 저자-독자로 만난 아동-교사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주는 자로 이뤄진 교육학의 관계를 재정비하며, 성인의 창작물을 아동이 수용하고 영감을 얻었던 기존의 문화·예술의 향유 체계가 어느 순간 반대로 작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오덕에게 아동문학이나 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아동 전반에 만연한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아동이나 농민, 노동자를 이른바 억압된 자로 보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저항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민중교육운동의 핵심이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민중교육운동은 초기에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야학 운영이나 농민·산업 선교가 그 내용이었다. 민중교육운동

---

테제를 해체했다. Jacques Ranciere, *Proletarian Nights*, New York: Verso, 2012, pp.4-5.

19 도날드 위니캣,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31쪽.

은 권력을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는 반(反)에너지로 보면서 주체 내부의 힘보다는 외부에서 개입해 ‘의식화’를 돕는 ‘해방적’ 교육을 강조했다.<sup>20</sup>

그러나 생활글 교육의 의의는 도움이 되는 참된 말(praxis)들을 주고받는 ‘대화’ 이전에 그것을 시작하는 말 걸기(address)의 권리를 아동에게 우선 부여했던, 교사의 전적인 청중되기, 즉 ‘경청’에 있었다. 일기검사가 규정하는 ‘진실 고백하기’에 더러 거부감을 갖기도 하나, 한편으로 아동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위안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의사 표시는 교사를 직접적인 독자로 상정한 편지 형식에서 더 확실해진다. 이것이 ‘말’로서 받아들여질 때 아동은 점차 자신만의 관점과 가치를 긍정하게 되고 타인의 권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리와 여유를 갖게 된다. 이처럼 자신에게 본래적으로 내재한 지적 능력을 인식하는 ‘지적 해방’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레이리적 ‘해방’과 구분된다.<sup>21</sup> 물론 이 해방은 일하는-농촌-서민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성인(노동자)이 되어 완벽한 ‘의식화’를 달성한 뒤에 찾아오는 미래적 형태가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에 존재하는 현재성을 지닌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창조성의 가능성을 배운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글 쓰기를 계속해 지적 해방의 동력을 얻는다. 『대화』지에 수기를 실어 유명해진 동일방직 노동자 석정남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며 그 옛날 자신에게 일기 쓰기 습관을 길러준 담임선생님을 떠올린다.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읽어주고, “가난한 집의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잣집 아이들이 잘하는 것보다 더 대견해 하셨”던 선생님은 그녀가 노동투쟁을 하는 데에 큰 확신을 준 인물이다.<sup>22</sup> 비슷한 시기 원풍모방에서 노동운동을 한 장남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온 일기를 구치소 생활 중 쓸 수 없게 된 괴로움을 수기집 『빼앗긴 일터』에서 밝힌다. 장남수는 한 남대생에게 톨스토이나 데미안에 대해 알려주는 경험에서 자신이 잠시나마 열등감에서 벗어나 그보다 우월한 지적 존재가 될 가능성을 본다.<sup>23</sup>

20 파울로 프레이리, 성찬성 역, 『페다고지』, 한마당, 1995, 33-42쪽.

21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궁리, 2008, 221쪽.

22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104쪽.

23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33-35쪽.

일찍이 글쓰기 교육에서 터득한 지적 주체로서의 인식은 이들에게 자본이나 지식층의 논리에 쉽사리 동화되지 않는 힘이 된 것이다.

다른 매체가 없던 시절 학교 교실에서 생활글은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외에도 학급 구성원이 다 함께 읽는 공적인 소통의 장이었다. 구성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일기의 기능은 학급 신문이나 서로 돌아가며 쓰는 반 일기, 분단 일기 등에 와서 더 뚜렷해진다. 다음 일기를 쓴 황은주는 광순이와 터놓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광순이의 일기를 읽고 외로움과 고통에 감화되어 자신만의 글쓰기를 수행한다.

내가 광순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아이의 일기를 읽어본 후부터였다. 매일 밤 담에 앉아 별을 본다는 이야기, 그 날은 별이 없어 슬펐다는 이야기……. 티 없는 광순이의 글을 읽어볼 때, 새삼 광순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별로 상대도 되어 주지 못하고, 마음의 위안도 되어 주지 못했다. 남자 아이들이 광순이를 괘시할 때마다 나는 슬프다. 똑같은 인간이 어째서 인간을 괘시하는지……. (1984년 7월 7일)

—서울 사당국민학교 6학년 황은주, 「광순이」<sup>24</sup>

아동이 전혀 다른 처지의 개체에게 감화하는 것은 주체 간에 작동하는 평등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12살 때 미국 어학연수를 갔다가 KAL기 피격사건(1983.9.1.)으로 사망한 재일교포 채수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원폭 투하 현장에 남은 히로시마 원폭 돔의 사진을 보고 돔의 외로움을 상상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 수명은 외로움의 근원에 놓인 타자의 부재, 그 죽음의 무고함을 생각하게 된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 쓴 다른 시에서도 수명은 묻는다. “누가 목숨을 돌려줄 것인가? / 아무 죄도 없는 식물까지도 / 생명을 빼앗겼다”<sup>25</sup> 다른 개체의 쓸쓸함에 공명하는 것은 이처럼 쓸쓸함을 벗어나게 하고픈 욕망을 낳고, 더 나아가 그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 반면 당시의 전두환 정권은 “우리가 국력

24 유인성 편, 『꿈이 있는 교실』, 지식산업사, 1987, 140쪽.

25 채수명, 채승석 역, 『생명과 희망』, 예찬사, 1986, 46쪽.

신장에 박차를 가하여 불의와 횡포를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자 “비명에 간 원혼들의 한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길”이라고 하며 애도를 적대로 손쉽게 전환하고, 그마저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와의 친교를 위해 진상조사가 무산된다.<sup>26</sup> 무고한 죽음에 대해 수명과 국가가 보여준 상반된 반응(response)은 취약한 개체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의식의 차이일터, 애도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항해 아버지가 직접 번역하고 가족과 교사, 친구, 그 부모님들의 글을 함께 실어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전달된 채 수명의 일기 모음집 『생명과 희망』의 출간(1986)은 수명이 보여준 타자의 슬픔에 응답하는 힘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학급이나 학교의 생활글 공동체는 노조 등 여타 사회단체를 통해 만들어진 글쓰기 공동체와 달리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조직된 것이 아니다. 학급문집에서부터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생활글 모음집들이 형성한 아동 저자의 집단은 실로 자의적이다. 일례로 『일하는 아이들』에는 안동 대곡분교, 상주 청리국민학교, 김천 모암국민학교 등 다양한 학교의 아동들이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쓴 아동시가 들어있다. 이오덕의 제자라는 점 외에는 희미한 아이들의 관계성은 순차적인 독해 과정에서 생성된다. 10년이 넘는 시차를 가진 시들도 농촌·어촌·광산촌 등의 공간, 특정 계절·일과 등의 시간, 농사일·가사 등 노동 유형 등 다양한 기준 아래에 함께 묶인다.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단독 저자로 출판되기 어려웠던 아동 생활글은 그 생산에 있어 항상 다른 아동의 생활글과 함께 묶이면서 일련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편집자는 “천 명의 아이가 쓴 천 편의 시는 천의 얼굴 처럼 다 다를”<sup>27</sup> 것을 인지해 각 저자의 이름과 출신 학교, 학년, 날짜를 항상 기재했듯이, 이 글쓰기 공동체는 ‘농민’ 혹은 ‘서민’과 같은 동일성이나 정체성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특이성들의 집합이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양질의 독서물과 독서 시간이 모두 부족했기에, 문집이나 생활글 출판물을 읽는 것이 중요한 독서경험일 뿐 아니라 농촌/도시의 이분법을 깨뜨리고 그 관계성을 모색

26 「『최대통령,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유시 “KAL機 피격사건 국력 신장 위한 교훈”』, 『매일경제』, 1983.9.22.

27 이오덕, 『아동시론』, 세종문화사, 1973, 25쪽.



하는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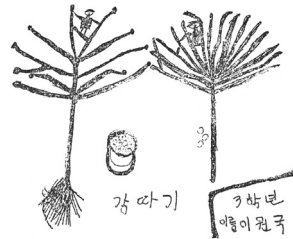
생활글 모음집에는 시와 산문, 일기가 뒤섞일 뿐 아니라 아동의 그림이나 글씨도 하나의 작품처럼 저자의 이름과 출신 학교가 기재되어 혼합된다.<sup>28</sup> 이때 서로 다른 아동의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텍스트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감나무가 웃고 있는가비라.

팔랑팔랑 웃고 있는가비라.

(1967. 5. 23.)

—경주 2학년 정경자, 「감나무」<sup>29</sup>



정경자의 시에서 “팔랑팔랑 웃”는 감나무는 같은 면에 배치된 이원국의 그림에서 꼭 손바닥이나 부채를 펼친 것 같이 가지를 뺀 감나무와 겹칠 때, 바람에 가볍게 나부끼는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전달된다. 이러한 장르 융합은 비단 생활글 모음집 내부에서만 아니라 출판된 생활글을 활용한 또 다른 문화적 변용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1980년대 민중가요의 창작자들이 이후에 아동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주목한 것도 아동 생활글이었다. 작곡가 김민기는 각각 농촌 아동의 일기 모음집과 탄광촌 아동의 일기 모음집을 바탕으로 아동극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얼굴 예쁘네요」(1987)를 만든다. 이들은 직접 만든 찰흙인형과 사진,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프로젝션 방식으로 상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음악극이었다. ‘제2의 김민기’라 불렸던 백창우도 1990년대에 음반레이블 ‘삼살개’를 만들고 아동 생활글을 가사로 한 동요를 만들어왔다. 이처럼 교사 혹은 출판이라는 권력에 의해 응집된 아동 저자는 문화적 (재)생산에서 마냥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았

28 배하은은 이러한 80년대적 장르 혼합과 관련해 조세희의 『침묵의 뿌리』에서 르포, 인터뷰, 사진, 공소장 등 서로 다른 주체들의 언어가 배치되는 장르융합적인 성격이 단순히 작가의 고통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고 독자의 적극적 독해를 요구하며 문학의 수행성을 극대화한다고 분석한다.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98-112쪽.

29 이오덕 편, 앞의 책, 275쪽.



다. 1980년대에 출판된 아동의 일기는 연일 베스트셀러가 되며 독자층을 형성한,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한 예술이었다.<sup>30</sup>

## 5 결론

근대 문학에서 작가는 개인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사회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노력하는 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성숙한 인간의 특성으로 당연시하는 자율성은 유아기 때부터 찾아오는 의존과 종속의 경험들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그 연장선에서 본 논문은 작가적 조건을 꼭 “성인이 독점하는 영역 안에서 파악하고 긍정해야 할 이유가 있”<sup>31</sup>는지 묻고자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학장 안에 출현한 아동 생활글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듯 1980년대는 사회 변혁의 한 방법으로서 민중적 글쓰기가 각광받으면서 문학의 창작 주체에 대한 기왕의 시각이 해체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아동문학가이자 교사인 이오덕을 위시한 민중교육운동의 참여자들은 아동 생활글의 장르화를 모색하고 교육과 출판을 통해 아동 생활글의 확산을 주도한다. 이때 운동의 출발점에는 순수아동문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아동문학 및 글쓰기 교육에 대한 부정이 있었던 한편, 그러한 전환적 구도는 새로운 장르적·교육적 규범의 정립을 정당화하고 특정한 글쓰기 주체의 이미지가 생산되는 데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된 담론적 지대를 본고는 이오덕의 글쓰기 교육론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규범과 이미지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아동의 글을 분석해 결과적으로 아동이 생활글쓰기를 통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고찰하려 했다.

본격적인 1980년대 아동 생활글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문예/생활로 나뉘는 아동 글쓰기의 계보를 살펴봄으로써 이오덕의 생활글 담론이 나타난 맥락을 조명하고자 했다. 제도 교육이 실시된 개화기 이래 아동의 글쓰기는 교육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조선어 글쓰기는 1920년대에 출현한 아동문학 및 매체에서 더 활발했다. 당시 창간된 아동잡지들은 작가와 독자

30 안건혁, 「어린이글 出版界 인기」, 『경향신문』, 1987.3.5.

31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56쪽.

층 모두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으며 실제로 많은 아동들이 현상모집과 같은 문예제도에 ‘문예글’의 작가이자 독자로 참여한다. 한편 편지나 일기와 같은 ‘생활글’은 식민지기와 해방 후 초등교육의 주체가 바뀌면서 초점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1950~60년대 일부 교사들은 기존 글쓰기 교육의 ‘기능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생활작문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문학가였던 이오덕은 자신의 생활글 교육론을 정립하고 여러 저술 및 단체 활동을 통해 이를 확산했다. 3장에서는 그의 생활글 담론의 핵심인 ‘진실성’과 ‘일하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 학생들의 글쓰기에서는 기존의 ‘훌륭한 아동’ 형상화 전략과 유사한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맹점이 드러났으며, 오히려 일부 아동 생활글에서 보이는 상상과 변형, 자기증언의 세계에서 생활글의 창조성과 수행적 진실성(veracity)이 발견됨을 확인했다.

4장은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출판된 생활글을 읽으며 아동이 생활글의 세계에서 발견한 자신의 타자성을 현실의 타자들에 적용하며 관계를 맺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생활글이 쓰이고 그것이 다른 글들과 만나 모음집으로 출간되는 과정에는 교사-학생, 아동-아동 등 다양한 관계들이 개입한다. 그런데 80년대 생활글 교육이 민중교육운동의 자장 안에서 활성화된 것은 맞지만 프레이리 식의 ‘억압된 자의 해방’이 생활글 교사의 특수한 위치를 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생활글 교육의 의의는 진실한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농촌 아동의 ‘열등감’을 해소해준 것이 아니라, 아동이 그 어떤 특수성과도 관계없이 본래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한 데에 있었다. 또 아동은 특유의 ‘놀이 정신’에서 발동한 상상력, 그리고 학급이나 학교와 같은 공동체에서 터득한 우연성과 개방성을 통해 낯선 개체의 감정, 특히 외로움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에 쉽게 감화한다. 여기엔 아직 그 신체의 한계를 모르는 아동의 잠재성이 작용하는바, 그 잠재성은 전혀 다른 공간이나 시간의 글, 그림, 음악 등과 묶여 또 다른 관계를 맺는 한편의 아동 생활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아동 생활글 연구가 비단 1980년대의 역사적 고찰에 그칠 게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형식으로 변용된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 유인성 편, 『꿈이 있는 교실』, 지식산업사, 1987, 140쪽.
- 이오덕, 『글짓기 교육—이론과 실제』, 아인각, 1965, 5쪽.
- \_\_\_\_\_,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한길사, 1984, 48-49쪽.
- \_\_\_\_\_, 「시정신과 유희정신」,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비평사, 1977, 185쪽.
- \_\_\_\_\_, 『아동시론』, 세종문화사, 1973, 25쪽.
- \_\_\_\_\_, 『이오덕 일기 1』, 양철북, 2013, 103쪽.
- 이오덕 편, 『우리반 순덕이』, 창작과비평사, 1984, 87쪽.
- \_\_\_\_\_, 『일하는 아이들』, 청년사, 1978, 4쪽; 12쪽.
- 채수명, 채승석 역, 『생명과 희망』, 예찬사, 1986, 46쪽.

- 「소년문단」, 『소년』 제1호, 신문관, 1908, 75쪽
- 『어린이』 제2호, 1924, 35쪽.

- 안건혁, 「어린이글 出版界 인기」, 『경향신문』, 1987.3.5.
- 「쇄대통령,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유시 “KAL機 피격사건 국력 신장 위한 교훈”」, 『매일경제』, 1983.9.22.

### 단행본

-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366-376쪽.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04, 161-188쪽.
- 도날드 위니캣,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31쪽.
-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8, 71쪽.
-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238-245쪽.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궁리, 2008, 221쪽.  
 \_\_\_\_\_, 진태원 역, 『불화』, 길, 2015, 71-81쪽.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56쪽.  
 파울로 프레이리, 성찬성 역, 『페다고지』, 한마당, 1995, 33-42쪽.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휴전』, 돌베개, 2010, 34-35쪽.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Ranciere, Jacques, *Proletarian Nights*, New York: Verso, 2012, pp.9-10.

## 논문

- 김대성, 「역사적 합창으로서의 노동자 글쓰기」, 『문화과학』 제90호, 문화과학사, 2017, 215-235쪽.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98-112쪽.  
 신흥범, 「허구시대의 논픽션의 의미」, 『창작과비평』 제43호, 창작과비평사, 1977, 164-171쪽.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7-52쪽.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시대와 문학론의 ‘토픽’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89-416쪽.  
 \_\_\_\_\_,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제106호, 역사비평사, 2014, 173-205쪽.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제45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21-260쪽.  
 허재영, 「국어과에서의 쓰기교육 변천 연구—근대계몽기로부터 건국기까지의 쓰기교육」, 『어문론총』 제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99-134쪽.